



| | | | |
|---|----------------|-----------------|---|
|  | 보 도 자 료 | |  |
| | 배포일자 | 2026년 3월 31일(화) | |
| 담당 부서 |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 •청년정책팀장 황화선 ☎880-7994 |
| 사진 | 있음 | | 보도시점 배포 즉시 |

미추홀구, 청년 친화 지수 전국 9위... “청년 정착 경쟁력 확인”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청년 친화 지수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에 오르며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일-삶-락-연 기반의 청년 친화 지수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종합 9위(상위 10%)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청년의 정주 여건을 ▲일자리(Work) ▲삶(Life) ▲문화·여가(Fun) ▲사회관계(Engagement) 등 4개 분야로 나눠 종합 분석한 결과다. 미추홀구는 특히 삶(Life) 부문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주거와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 시설이 청년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지역 이동 요인 중 약 45%가 일자리임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복지·문화·사회관계 등 종합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그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 주거 안정 ▲취·창업 지원 ▲청년정책 참여 확대 ▲청년 심리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성실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구는 청년 정주 여건 전반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이며 수도권 내 경쟁력 있는 청년 정착 도시로 평가됐다.

이영훈 구청장은 “청년이 단순히 유입되는 것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